

익산시, 푸드테크로 미래산업 선도

푸드테크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기술 개발·기업 육성·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마련

식품산업 수도 익산시가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 인공지능(AD)과 같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신산업이다.

최근 대체식품, 식품 자동화, 스마트 포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시는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대체식품 기술 개발과 전문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산업기반시설 구축 등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조성 중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내년 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최초 선정된 사업으로, 대체식품 핵심기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조성 중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술 개발과 시제품 생산을 위한 실증 공간으로 운영된다.

시는 여기에 더해 전문가 중심의 푸드테크 산업 육성 정책위원회를 운영 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내 푸드테크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메타버스 기술실증 사업을 통

해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K-소스와 대체육, 음료, 포장 등 분야별 실증으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자동화와 제조품질 향상 등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한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말부터 본격 시행될 푸드테크 산업법에 대비해 시장 선도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은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유한 도시로, 푸드테크 산업의 최적지"라며

"매년 30% 이상 고속 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지역 농식품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전환해 내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시민 여러분의 투표권 꼭 행사해주세요”

강임준 군산시장, 조촌동 사전투표소 찾아 투표 마쳐

강임준 군산시장과 박수자 여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소중히 한 표를 행사했다.

군산학생교육문화관에 설치된 조촌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친 강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바쁜 일정으로 본 투표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사전투표를 통해 꼭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참여로 완성된다.”라며 “시민 모두가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행정복지센터 등 27곳에서 진행된다.

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내 78곳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기업이 찾는 익산 쌀... 맞춤형 생산단지 본격 가동

4,150ha 규모 모내기 현장 집중 점검... 올해 4만여 톤 공급 예정

익산시가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에서 본격적인 모내기 준비에 돌입했다.

익산시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의 모내기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올해 조성된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는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에 달하는 4,150ha 규모다.

시는 맞춤형 생산단지에 각종 농자재를 지원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CI와 같은 대기업에 고품질의 쌀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시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해나 이상 고온 등 지역 농가의 피해가 많았던 만큼, 조기 이앙을 자제하고 평년보다 1~2주 가량 늦게 모내기를 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적절한 모내기 시기와 포기당 벼 수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병해충이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방제 조치해 품질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철저한 품질관리로 생산된



익산 쌀은 △CI 햇반 △본죽과 본도시락 등 분야에 제품 △농협식품 △수도권 학교급식 등 다양한 곳으로 공급되며 익산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4만여 톤을 공급할 예정이 다시 관계자는 “최고 품질의 익산 쌀을 생산하기 위해 현장에서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엄격한 품질관리로 소비자들에게 익산 쌀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2025년 어청도 낭만여행’ 올해는 더 특별하게

군산시, 내달 7일 행사 개최... 어청도 매력 알리는 프로그램 다채

군산시가 오는 6월 7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25년 어청도 낭만여행'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작년 첫 개최되었으며, 여객선 어청카페리호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군산 대표 섬 어청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여객선 탑승도 관광의 하나로 느낄 수 있게 행사를 준비했으며, 실제로 행사 기간 어청도 항로 여객이 전년 대비 20% 증가하기도 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올해 2025년 행사 참가자를 모집할 때도 전국에서 신청이 쇄도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다가오는 행사를 위해 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해양경찰서의 협



조로 여객 운항 일정 조정을 통해 어청도의 낮과 저녁 모두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관광공사 블로그 홍보 지원을 통해 행사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선내에는 토크콘서트·선상 노을 포토타임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며, 여객선 운항 시 해양경찰 함정이 동행하여 선상 안전을 확보한 안전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섬에 도착한 뒤에는 어청도 먹거리, 어청도 특산물 홍보·판매 행사, 섬 걷기 여행, 사진 투어 등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해양수산부, 군산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어청도 해양 생태와 관련된 주제(어청도 흥어 이야기)의 선상 토크콘서트, 도내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와 어청도 흥어점 먹방 영상을 제작·홍보하여 어청도를 대표하는 군산 참흥어도 효과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박동래 수산산업과장은 “올해도 군산 어청도의 경쟁력 있는 심심한 수산물, 먹거리 등 관광 요소들이 많이 알려져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어촌마을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싶다.”라며,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어촌관광 행사로 자리매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최종 선정

국립군산대학교는 29일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대학의 고교교육 반영 등 공정·투명한 대입전형과 학생의 입시 부담 완화와 고교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됐다.국립군산대는 지역 고교와의 협력 프로그램과 공정한 대입전형 운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선정됐으며, 오는 2026년까지 약 5.8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 교육 및 훈련 강화 △지역 고교와의 협력 확대 △전형 운영의 질적 개선 등을 통한 공교육 중심의 대입전형 모델 등 공교육 중심의 대입전형 모델을 실현하고, 지역 고교교육의 내실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군산대학교 김중길 입학처장은 “이번 선정은 우리 대학이 10년 연속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쌓아온, 고교 연계 활동과 공정한 입학전형 운영에 대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수험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입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